

세상에 나오지 못한 시나리오 흔적 그리고, 사각 틀 속에 사는 현대인들

전주신진예술가 7기 선정작
송지연 '그녀의 영화관'
문민 '나를 비롯한 그대들
인간기술서' 15일까지
각각 Plan C·서신갤러리서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전주신진예술가 7기 지원사업 선정작인 송지연 개인전 '그녀의 영화관'과 문민 개인전 '나를 비롯한 그대들 : 인간기술서'를 오는 15일까지 각각 Plan C와 서신갤러리에서 진행한다.

'그녀의 영화관'은 송지연 작가의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영화들에 대한 전시다. 송 작가는 '나를 비롯한 그대들'이라는 세상에 나오지 못한 시나리오들의 흔적을 남기고자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 이번 전시에서 송 작가는 '여성, 소수자, 약자, 이방인 등 세상에 존재하지만, 시장에 팔릴 수 없는 존재들의 이야기를 영상언어로 표현해 왔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세상의 모든 여성이 자신의 이야기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나눌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송지연 작가는 단편영화 'Bubble Girl', 'Roommate' 감독을 시작으로 장편영화 '세시봉', '유타 가는 길', 'New York Minute' 등 다수의 영화·광고 프로듀서와 아트디렉터로 일했다. 최근에는 전통성당과 종남문 미디어파사드 '빛의 옷을 입다', 드론 미디어아트 공연 '꽃심, 나르샤' 감독도 역임한 바 있다.

또 문민 작가의 '나를 비롯한 그대들 에피소드'는 인간을 단순화해 사각 틀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기록하고 담아낸다. 문 작가는 느꼈던 일상, 감정 등 모든 것은 작품의 소재가 되며, 이를 현대인의 모습으로 나타내고, 조형적인 개념을 통해 기록되는 작업이다.

고충환 미술평론가는 "근작에서 작가는 조각이 아닌 회화를 시도했다. 본격적인 회화라기 보다는 드로잉이나 에스키스에 가까운 것으로서, 표현영역에 대한 확장을 꾀하고 있다"며 "표면적으로 볼 때 매체가 달라지고 장르가 달라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정체성 문제에 천착하고 있는 것이 전작과의 연장선에 있고, 전작에서의 주제 의식(사각형으로 표상된 사회적 틀 속에서 자기를 상실한 삶을 사는 현대인의 초상)을 확장하고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문민 작가는 개인전 6회, 그룹전 80여회를 참여하고, 2016 전라북도 미술대전 대상 외 20여회를 수상했다. 작품은 도립미술관, 전북대학교, 교동미술관, 서신갤러리, 대교문화재단 등



송지연 개인전 '그녀의 영화관'은 11시부터 6시까지 오픈하며, 문민 개인전 '나를 비롯한 그대들 : 인간기술서' 관람은 1시부터 6시까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문화재단 문화진흥팀(063-283-9227)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시립도서관 꽃심, 독서 프로그램 '풍성'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이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우선 오는 13일 남수진(새벽달) 작가가 '이의 마음을 읽는 디지털 육아'를 주제로 부모교육 특강을 한다.

19일에는 전주시립예술단과 함께하는 '책 읽여주는 낭독공연'이 진행되며, 25일에는 '저 청소일 하는데요?', '나행히도 죽지 않았습니다'의 김예지 작가를 만나는 시간이 주어진다.

프로그램 참가 신청은 전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lib.jonju.go.kr) 또는 전화(063-230-1829, 1814)로 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문민 개인전 '나를 비롯한 그대들 : 인간기술서' 관람은 1시부터 6시까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문화재단 문화진흥팀(063-283-9227)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자료실에 보관해온 고문헌 선별 정리

원광대 중앙도서관 '고문헌 도록' 발간 동향자본 등 자료 소개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중앙도서관은 그동안 고문헌 자료실에 보관해 온 2만8,000여권의 고문헌을 선별 정리해 '원광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 도록'을 발간했다.

이 도록은 원광대 중앙도서관에서 소장 중인 다수의 고문헌이 학술 가치가 뛰어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사장돼 있어 도록을 통한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됐으며, 문화재급 고서를 비롯해 다양한 인쇄방식과 학술 내용을 보여주는 문헌자료를 정선해 수록했다.

특히 호남의 인쇄문화를 보여주는 완산본과 태인본, 우리나라 인쇄사의 백미인 동활자본, 우암 송시열 선생의 친필 목적, 동아시대의 지식 유통을 알 수 있는 고서 등 다양한 종류의 수준 높은 자료가 소개됐다.

한편, 중앙도서관은 박맹수 총장과 박원기 도서관장 유족 대표, 노기춘 미암박물관장, 강찬수 중국학과 교수 등 도록 발간 관계자



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출판 기념식을 가졌으며, 중앙도서관장 이우정(중국학과) 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고문헌 도록 발간을 통해 귀중한 자료들이 전북 지역의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계기를 만들고, 나아가 원광대 중앙도서관이 향토 정신문화유산을 보존 연구하는 중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진안역사박물관, 빗살무늬 토기만들기 비대면으로 운영

진안역사박물관은 11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11월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 군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11월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은 주민들이 각 가정에서 빗살무늬 토기의 문양을 새겨보며 진안의 선사시대 토기와 농경문화를 알아보고, 이해해보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오는 18일까지 참가신청을 받는 이번 프로그램은 진안군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선착순 25가정을 선착순 모집할 계획이며, 빗살무늬를 직접 새겨볼 수 있는 토기 만들기 키트와 진안의 선사문화에 대해 알 수 있는 활동지를 박물관에서 직접 수령하여 각 가정에서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직접 무늬를 새긴 토기를 박물관에 제출하면 공방에서 장작불에 구워 완성하여 각 가정에 배송할 예정으로, 토기 제작과 소성과정에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57호 진안고원형용기장 보유자 이현배 응기장이 참여한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의 자세한 교육·체험 진행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SNS(밴드 등)를 통해 운영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진안역사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문의는 전화(063-430-8086)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토기에 직접 빗살무늬를 새기며 진안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박물관이 재미있고 즐거운 문화 공간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